

9. 11. 9.(목) 12시 20분까지		10. 11. 9.(목) 12시 20분까지	
간격		데생	
안도현		김광균	
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.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.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.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.		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전신주 하나하나 기울어지고 머연 고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. 구름은 보라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부으면 꺼질 듯이 외로운 들길.	
11. 11. 9.(목) 12시 20분까지		12. 11. 9.(목) 12시 20분까지	
별을 쳐다보며		가는 길	
김광섭		김소월	
저 멀리서 바라보는 저 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감인지 나는 그것을 알고자 함이 아니나 끝없이 넓은 공간에 흩어져 서로 사귀고 서로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법칙 아래 다툼 없이 빛을 주고받으며 영원히 반짝이는 저 별들은 모두다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고 모두다 스스로의 갈 길을 가나니 비록 지상의 어두운 손님이 되어 외로운 곳에 섰을지라도 자율하는 천성을 얻어 영혼을 삼으면 나도 저 별 하나가 되리라		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..... 저 산에도 까마귀, 들에 까마귀, 서산에는 해 진다고 지저귀니다. 앞 강물, 뒷 강물,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.	